

## 자료 안내

1. 본 자료는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봉투 모의고사 6회분 (2018년)' 구매자들을 위해 제작된 무료 학습 자료입니다.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봉투 모의고사 6회분 (2018년) - 6.89월 평가원, EBS 연계교재 완벽 반영, 2019 수능 대비 | 현자의 돌 시리즈 (2018년) 🔍

무료배송 | 특가쿠폰

임수민 (지은이) | 메가스터디교육 | 2018-09-20

공유 | URL

**현자의 돌 모의고사**  
2019 수능 대비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참고서 사은품! 무민 북엔드, 신발 파우치 (3만원 이상부터)**

정가 : 13,000원  
판매가 : **11,700원** (10%, 1,300원 할인) | 무이자 할부 ?  
마일리지 : 650점(5%) + 멤버십(3~1%) + 5만원이상 구매시 2,000점 ?  
↳ 국내도서 외 상품 포함 구매에 한함

세액절감액 : 530원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 및 조건 충족 시) ?  
추가혜택 : 카드/간편결제 할인 ▶

이 책의 전자책 : 출간된 전자책이 없습니다. [출간알림 신청](#)

반양장본 | 26쪽 | 300\*410mm | 70g | ISBN : 9791188449323

배송료 : 신간도서 단 1권도 무료 ?  
수량예상일 : 지금 택배로 주문하면 내일 수령 가능 ▶  
88.1% 최근 1주 확률 (서울 중구 중림동 [지역변경](#))

주문수량 : 1

[장바구니 담기](#) [바로구매](#) [선택하기](#)  
[보관함 담기](#)

**사라진 소망차**  
오네스피, 엔딩왕립추천 마르틴 베코 시리즈 출간 #10

★★★★★ **10.0**

- \* 고등학교참고서 주간 4위
- \* 고등학교참고서 top100 2주
- \* Sales Point : **12,740** ?

- \* 읽고 싶어요 (0명)
- \* 읽고 있어요 (0명)
- \* 읽었어요 (49명)
- \* 100자평 (3편) ✎
- \* 리뷰 (46편) ✎

[이 책 구매요?](#)

[알라딘에 팔기](#) [회원에게 팔기](#)

[종고 등록 알림 신청](#)

(2018.10.14.자 알라딘 고등참고서 주간 4위, 60명의 최대 검토진이 참여한 고퀄리티 모의고사, 6회분 11700원 초저가 판매中)

2. 본 자료는 '수능&평가원 기출 中 사형제' 모음 자료입니다.

### 3. 학습법:

- ① 해당 단원이 부족한 학생은 여러 번 반복 출력해서 푸세요.
- ② 모르겠는 문항은 전개년 연도별 해설(EBS)에서 학년도를 검색하여 해설을 참고하세요.

4. 본 자료는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고자, '교육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5. 본 자료는 비 상업적 목적에 한정하여 자유롭게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친구분들과 file을 공유하거나, 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6. 본 자료에 수록된 문항의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편집 및 수정된 선지, 새로 작성된 해설에 대한 2차 저작권은 현자의 돌에게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복제를 금합니다.

7. 자료 정오표: cucuzz.com 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1. 다음 가상 대담 속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2014.6 8번)

사회자: 선생님은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주장하셨지요. 이와 관련하여 정당한 형사적 처벌의 원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상가: 형사적 처벌은 한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의 형태와 정도는 평등의 원리에 따라야 하지요.

사회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사형 제도의 존폐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상가: 사형 제도는 ㉠

- ①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 ② 공공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존치되어야 합니다.
- ③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존치되어야 합니다.
- ④ 범죄자도 교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 ⑤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존치되어야 합니다.

2.(2014.11)

6.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주장을 (나)의 학생 발표로 요약할 때, A, B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모든 인간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려고 한다. 그 누구도 살해당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는 자신의 생명 보전을 목적으로 삼는 계약에 동의한다. 그래서 각자는 자신을 공동체에 양도하여 일반의지의 감독 아래에 둔다.</p> <p>을: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만 그에게 가해져야 한다. 그 누구도 결코 타인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p>
(나)	<p>학생 x: 갑은 “사형 제도는 <input type="text" value="A"/>”라고 주장합니다.</p> <p>학생 y: 을은 “사형 제도는 <input type="text" value="B"/>”라고 주장합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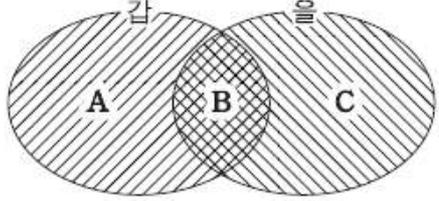
— < 보 기 > —

<p>ㄱ. 범죄자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치되어야 한다.</p> <p>ㄴ. 범죄자도 생명에 대한 권리를 지니므로 폐지되어야 한다.</p> <p>ㄷ.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치되어야 한다.</p> <p>ㄹ. 범죄자도 교화를 통해 변화될 수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p>
--

- |  |  |   |   |
|--|--|---|---|
| <p><u>    A    </u></p> <p>① ㄱ</p> <p>③ ㄴ</p> <p>⑤ ㄷ</p> | <p><u>    B    </u></p> <p>ㄴ</p> <p>ㄷ</p> <p>ㄹ</p> | <p><u>    A    </u></p> <p>② ㄱ</p> <p>④ ㄴ</p> | <p><u>    B    </u></p> <p>ㄷ</p> <p>ㄹ</p> |
|--|--|---|---|

3. (2015.9)

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범죄자도 형벌을 받아 생이 끝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형벌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범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경중은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야 한다.</p> <p>을: 범죄 예방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強度)가 아니라 그 지속성이다. 범죄자의 사형 장면을 보는 것은 종신형과는 달리 범죄 억제에 일시적인 효과만을 갖는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div>

—〈보기〉—
<p>ㄱ. A: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형벌이다.</p> <p>ㄴ. A: 범죄 예방과 억제가 사형 제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p> <p>ㄷ. B: 범죄자의 교화와 개선이 형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p> <p>ㄹ. C: 사형 제도 존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사회적 유용성이다.</p>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201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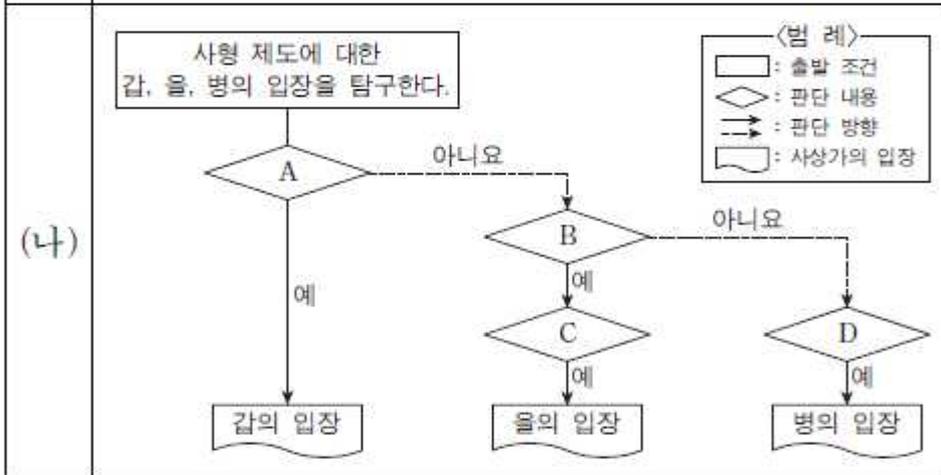
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신도 희생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는 일반의지로부터 규정된 법을 따라야 한다.

을: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그래서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종류와 정도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평등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병: 형벌과 위법 행위 간에는 비례의 규칙이 성립해야 한다. 형벌의 정도는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비례의 규칙은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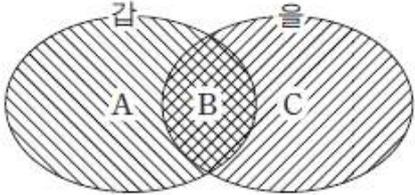
〈보기〉

ㄱ. A: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가?  
 ㄴ. B: 사형 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  
 ㄷ. C: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인간 존엄성의 이념에 부합하는가?  
 ㄹ. D: 사형 제도의 정당성은 공익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2016.6)

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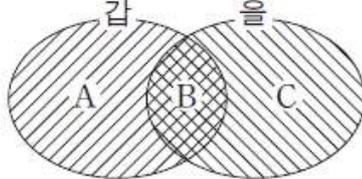
(가)	<p>갑: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에 있다. 이를 위해 각자는 모든 것을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일반의지의 감독하에 둔다. 살인을 저질러 계약을 위반한 자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p> <p>을: 법의 일반적 목적은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형벌은 악이다. 공리의 원칙에 의하면, 형벌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악을 제거하는 것이 보장될 때뿐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p>—〈보기〉—</p> <p>ㄱ. A: 사형은 사회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p> <p>ㄴ. B: 살인범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 사형의 목적이다.</p> <p>ㄷ. C: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p> <p>ㄹ. C: 사형의 해악은 사형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p>
---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6. (2016.11)

1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정언명령이자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선형적으로 근거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p> <p>을: 형벌은 최대 행복의 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형벌은 범법자에게는 교정과 무력화로, 다른 사람에게는 본보기로 작용하여 위법 행위를 방지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법 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div>

—〈보기〉—	
<p>ㄱ. A: 사형은 살인범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다.</p> <p>ㄴ. B: 형벌은 보복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p> <p>ㄷ. C: 형벌의 부과는 공리성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p> <p>ㄹ. C: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이다.</p>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2017.6)

12.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형벌의 선한 결과가 형벌 자체의 악보다 크다면 형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사형과 같은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범죄 억제력이 큼니다.



갑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합니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것이므로,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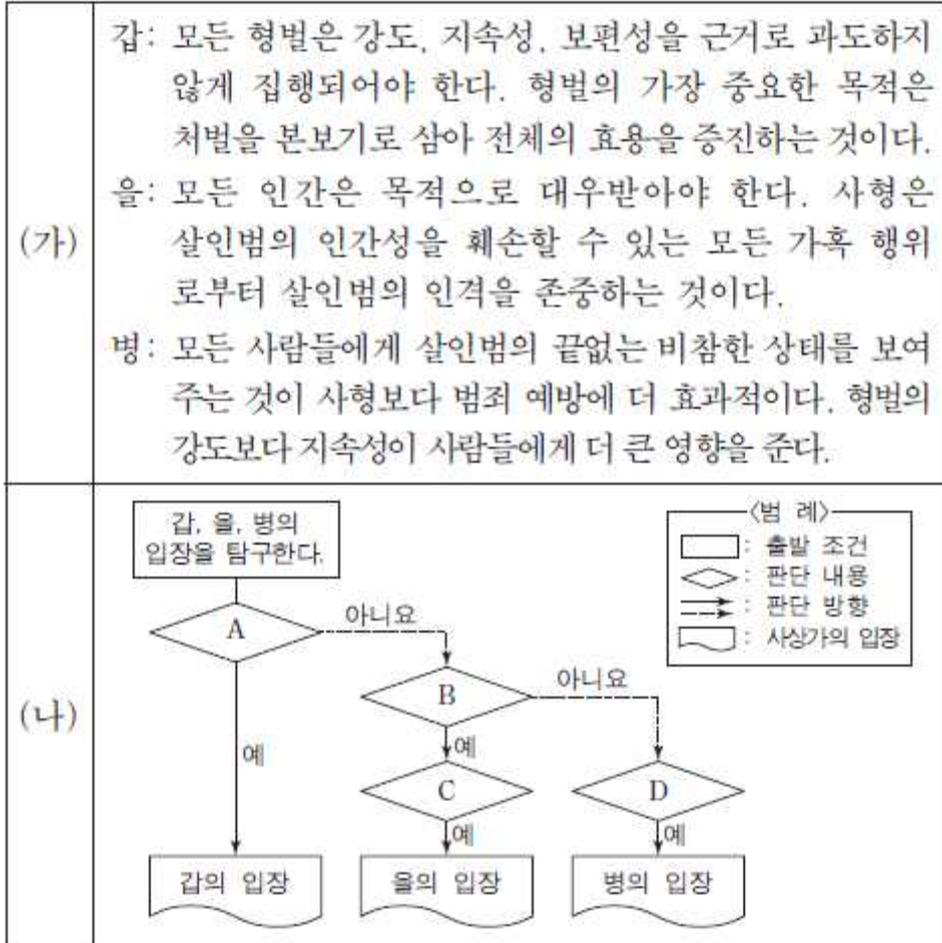


을

- ① 사형은 유용성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 존중의 이념에 위배되는가?
- ② 형벌의 목적은 응분의 보복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에 있는가?
- ③ 사형제는 보다 효과적인 형벌 제도가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하는가?
- ④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
- ⑤ 사형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가?

8. (2017.11)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ㄱ. A: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살인범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하는가?  
 ㄴ. B: 사형은 범죄 억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응보적 처벌인가?  
 ㄷ. C: 사형은 살인죄에 대한 동등성 원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벌인가?  
 ㄹ. D: 사형은 종신형에 비해 처벌의 사회적 효용이 낮은 형벌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2018.6)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권한은 사회계약으로부터 나온다.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해야 한다.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을: 범죄에 대한 형벌은 사회의 최대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일반인에 대한 경고에 있다. 사형은 그 범죄자가 살아 있는 것이 나라 전체를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할 경우나 적합한 형벌이다.

— < 보 기 > —

- ㄱ. 갑: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사형보다 우월한 형벌이 존재한다.  
ㄴ. 을: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동해보복을 위한 필요악이다.  
ㄷ. 을: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ㄹ. 갑, 을: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0. (2018.9)

17. 갑, 을 사상가들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법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쓸 권리를 갖습니다. 사회 계약을 파괴한 살인범은 도덕적 인격이 아닌 공중의 적으로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법은 특수 의사의 총합인 일반 의사를 대표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사회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형은 한 시민의 존재를 파괴하는 부적절한 전쟁 행위이므로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갑



을

- ①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하는가?
- ② 살인범에 대한 사형 선고에 동의하는 것은 정당한가?
- ③ 사형은 종신 노역형에 비해 범죄 억제력이 열등한가?
- ④ 사형은 사회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형벌인가?
- ⑤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형벌인가?

11. (2018.11)

17. 갑, 을 사상가들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시민의 생명 보존이 사회 계약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체와 모든 능력은 공동의 것이며, 이것은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하에 있는 것입니다. 시민 사회에서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포기해야 합니다.

갑



시민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동의로 해체될 경우라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먼저 처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 의욕하는 것입니다. 공적 정의 앞에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입니다.

을



- ① 살인범을 사형하는 것은 그를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인가?
- ② 사회 계약을 위반한 살인범을 국가 구성원에서 배제해야 하는가?
- ③ 사형은 살인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되는 응당한 보복의 방법인가?
- ④ 살인범을 사형하지 않는 것은 공적으로 정의를 침해하는 것인가?
- ⑤ 사형제는 인간 존엄성의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제도인가?

12. (2019.6)

6. 갑, 을 사상가들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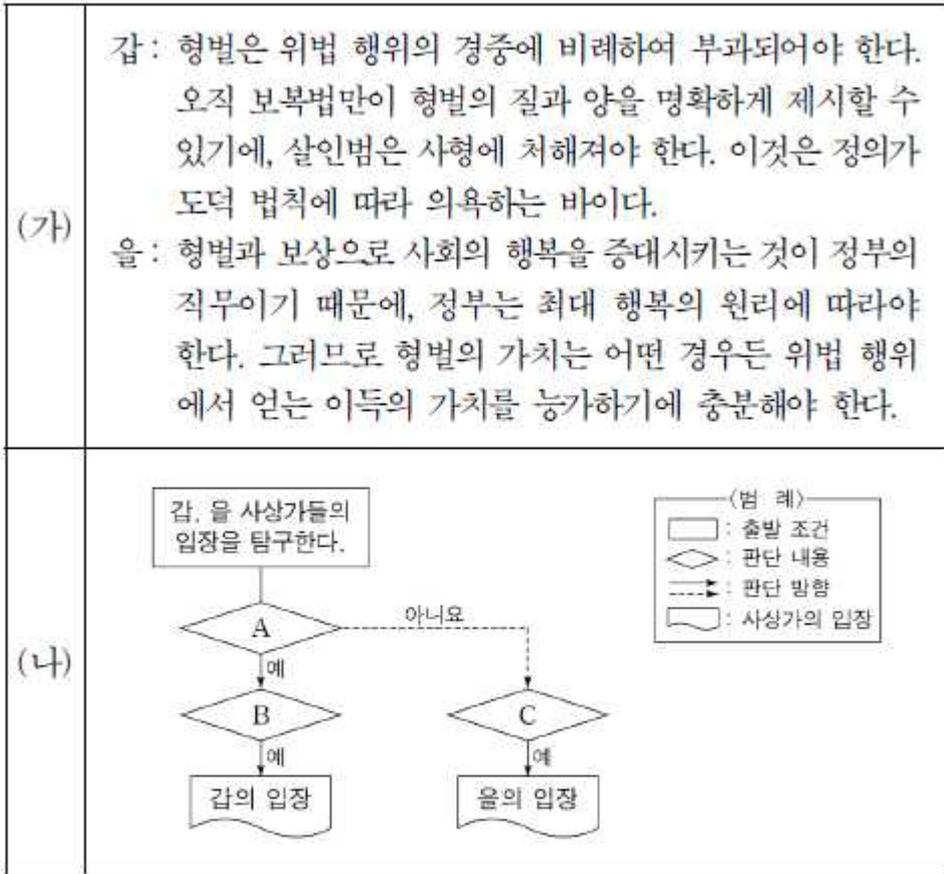
갑 : 형벌은 보편 법칙을 입법하려는 의지의 형태로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범죄자 자신에게 실현시켜 주는 것이다. 형벌은 스스로가 한 행위에 응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을 : 공공 의사의 표현인 법은 살인을 증오하고 그 행위를 처벌한다. 살인범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이 범죄 억제에 가장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 ① 형벌은 범죄와의 응보적 관계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가?
- ② 사형은 사적 차원의 보복이 아닌 공적 차원의 형벌인가?
- ③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형벌인가?
- ④ 형벌로 얻는 공공 이익은 형벌이 초래할 해악보다 커야 하는가?
- ⑤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교화가 아닌 타인의 범죄 예방에 국한되는가?

13. (2019.9)

1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A: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더라도 정당화 가능한가?
- ㄴ. B: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전제하는 것인가?
- ㄷ. C: 형벌은 공리를 증진하기 때문에 형벌 그 자체는 선인가?
- ㄹ. C: 형벌은 범죄 의지를 억제시키려는 수단이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⑤②③⑤②  
⑤⑤⑤③⑤  
⑤⑤③